

우석대 조현철 처장, 도지사 표창

우석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인 조현철 교수(체육학과)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라북도의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사업을 4년 연속 수행하고 있는 조현철 처장은 '2023 세계잼버리 융합 운영 지도자 육성과정' 교과목 운영과 현장 방문, 워크숍 등 지도자 양성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현철 처장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융합 잼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자 양성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체육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현철 처장은 대외적으로 전북장애인펜싱협회 부회장과 전북스카우트연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익산중 오은락 동문 발전기금 전달

익산중학교는 오은락 동문(제12회 졸업)의 발전기금(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은락 동문은 평생교육에 헌신, 초등교사로 재직할 참스승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익산중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돼 더 큰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오은락 동문의 가정은 노부모를 극진히 모셔온 효행의 집으로 선정돼 2011년 익산시로부터 '효열장'을 받은 바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직원과 김재겸 운영위원장, 백색별 학생회장만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2동 예일교회, 무료식사 대신 쌀 나눔

전주시 평화2동 소재 예일교회는 지난달 30일 동 주민센터에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예일교회 임기수 담임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의 숨은 보석 '유니온시티'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이틀 번째 일정으로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정책과 우수한 기술 인력,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유니온시티'를 방문했다



도로교통시설물 제조를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설립된 '유니온시티'는 팔각 가로재 구조로 국내 최초 와이어가 없는 개선형 교통 신호등주를 주력제품으로 전주, 수원, 제주도 등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탄소섬유 열선 발열시스템이 적용된 고속도로 졸음 워터, 미세먼지 저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등 탄소제품 활용 개발에 힘써 전국 공급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등 세계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이다

특히, 관내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이기도 하다

임동욱 유니온시티 대표는 "현재 경제문제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전주에 기업이 많이 없어 무척 안타깝다. 팔복동 단지를 첨단화해서 우리 아들, 딸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현 전북과 전주의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우 전 부지사는 "기업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지역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전북은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행정은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대학도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인 또한 신바람이 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힘들다. 뉘가를 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이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하는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에 와 있는 대기업의 기술지원, 인력지원, 인력파견 등 다각적 방향으로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대기업의 역할을 짚었다

이에, 우범기 전 부지사는 "전북도 탄소제품 생산 선도기업인 '유니온시티' 또한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탄소를 활용해서 그 제품을 활용하는 도시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종교역사와 같은 자산을 기업의 시각으로 산업화해야만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이 되고, 돈이 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꾸 돈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전주는 현재 너무 전통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정드림요양병원, 송천동 저소득가정에 라면 후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에 소재한 전주 정드림요양병원(원장 최혜은)은 지난달 28일 연말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김주환)와 송천동 주민센터(동장 정대선)에 각각 25박스씩 총 50박스의 라면상자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받은 라면상자는 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이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최혜은 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웃돕기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평화2동,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부행렬 이어져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김현옥)에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2동 소재 용인대 나라찬 태권도는 사랑의 성금 30만원과 라면 2,000개(160만 원 상당)를 주민센터에 후원했다. 효재동 소재 (유)풍경아트는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사랑의 백미 30포(9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용인대 나라찬 태권도 최낙훈 관장은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는 뜻으로 해마다 관원들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풍경아트 오성훈 대표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절차를 통해 평화2동 관내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대명창호 남원공장, 성금 1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에도 이웃을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에는 대명창호(대표 서정유) 남원공장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대명창호는 창호 제조 전문업체로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2019년 AI압출공장을 설립하면서 광주, 전남, 전북지역 중심의 창호전문 명품회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상승의 악재 속에서도 '하반년'은 신념을 갖고 기업을 이끌어 왔으며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연말 소외계층을 위해 온정을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남원 중앙고물상(대표 김보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3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평소 김 대표는 해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남원에서 폐지를 모아 기부하기로 유명한



최효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이 앞섰다. 당장 올해부터 작은 마음이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기부 계기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